

종합·해설

영호남 8개 시·도지사협 오늘 경남서 수도권 규제완화 맞붙

남해안 세계 관광지로 개발 목표~부산 KTX 조기 건설

'선벨트' 사업 활성화 등 공동현안 14건 정부에 촉구

지방의 '반란'이 시작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공동 대응하면서 남해안을 동북아 경제 거점 및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는 등 맞붙을 농을 조진다.

광주·전남·전북 등 영·호남지역 8개 광역자치단체로 이뤄진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의장 김완주 전북지사)는 31일 경남 사천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남해안 선벨트' 사업 활성화 등 8개 시·도의 공동 현안 14건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인 만큼 정치권의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753km)에 걸쳐 있으며 추정 사업비만 24조3000억원에 이르지만 선연적 의미에 그칠 정도로 실질적 미흡한 상황이다.

영·호남 등 '남부권' 8개 지사는 이같은 점을 감안,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 신성장 동력의 발전지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면서 정치권에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총선과 대선에 공약으로 채택,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은 또 '남부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목포~부산간 KTX 조기 건설 ▲고속도로 휴게소의 환승정류장 도입 등 남해안 육상교통 연계체계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8개 시·도지사는 아울러 이날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은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회의와 관련, "이번 회의가 영·호남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5월로 예정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국제농업박람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료 썰매장, 동심은 즐거워 마련돼 인기를 끌고 있다.

30일 담양군 월산면 용흥마을 '용오름 썰매장'에서 어린이들이 썰매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주민들이 2900여㎡의 눈에 물을 가두어 만든 이 썰매장에서는 팽이치기, 널뛰기, 연날리기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군고구마 시식도 /담양=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편적 복지·부자 증세 경제민주화로 재벌개혁

■ 민주 공약 선점 세몰이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정책대결을 위해 경제 및 복지 공약 선전에 주력하고 나섰다. 특히 선연적인 공약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까지 제시하며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한명숙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는 독점·독식·독주의 '3독 경제'인데, 이제는 재벌과 중소기업, 재벌과 노동자, 재벌과 서민이 잘사는 공존공생의 '3공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당의 정책 차원을 넘어 국민의 정책, 국민의 희망 슬루션을 정립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2월까지 경제민주화특위·보편적복지특위·조세개혁특위 등 3대 특위가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다. 기조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1% 슈퍼부자증세'다.

민주당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벌세 도입 검토, 출자총액제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해 불을 댕겼다.

민주당은 또 경제민주화 공약의 하나로 31일 비정규직 해결과 정리해고 제도 개선, 내달 7월에는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정책을 내놓는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해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중소기업

업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방안과 납품단가 현실화 등이 중점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편적복지특위는 내달 2일 보편적 복지 공약으로 '3+3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주거복지·일자리복지)을 발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주요 사안별로 밝힌다.

조세개혁특위도 2월 중 '1% 부자증세'와 대기업 '버핏세' 도입을 통해 복지재원 충당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1%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중심으로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여 차기정부 말인 2017년의 세수를 현재보다 20조원대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말인 2007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정부 출범 후 지난해 19.3%까지 떨어졌다"며 "2013년부터 부담률을 높이기 시작해 2017년에 21.5%까지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정부가 실시한 부자증세를 차기정부 5년 간 점진적으로 원상회복하는 의미가 강하다"며 "1% 부자증세를 통해 99% 국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자·보수 탈색 '좌클릭' 민생복지·일자리 최우선

■ 한나라 새 정강정책

한나라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복지와 일자리'에 방점을 찍은 당 정강정책을 6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는 30일 '국민행복 국가'를 새로운 모토로 내세운 정강·정책 개정안을 확정하고 명칭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다. 개정안 전문은 당의 역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발전적 보수'라는 용어 대신 '보수적 가치'를 추구해왔다는 점을 명시, 보수 정당의 틀을 유지했다.

그러나 민생복지와 정치쇄신을 골간으로 10개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10대 약속 23개 정책'에서는 중도를 향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당은 '박근혜식 복지모델'인 평생맞춤형 복지체계의 확립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복지(1조) 조항에서 '박근혜식 복지'의 틀인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정했다. 특히 아동·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탈북자 등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복지·고용 서비스를 강조했다.

일자리(2조) 조항은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했다. 또 청년고용을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로시간의 적정화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했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공정한 시장경제(3조) 조항은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고 기술했다.

각 경제주체는 사회통합과 사회발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했으며,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단계적 확대도 포함시켰다.

통일(8조) 조항은 '유연한 대북정책'을 명문화했다. 대신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의 인권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4조) 조항은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을 없애고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생 스스로의 생애진로 개발지원, 인성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공정한 출발과 경쟁'을 부각시키면서 공교육의 질 제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추진을 명시했다.

정강정책 개정안은 13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당명개정안과 함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농축산업 국가 과제 채택 육성 해달라"

박준영 지사 건의

전남도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

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농축산업 국가경쟁력 과제 채택과 농수축산물 현지 가공 유통 시설 확보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 "앞으로 30년 내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식량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축산업을 국가경쟁력 과제로 채택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현재의 사육·가공·유통에 이르는 시스템으로는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없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현장에서 가공·유통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의 생생한 소리에 공감을 표시하고 작은 것부터 개혁하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아울러 ▲공장 설립 승인 시 도시계획 심의 완화 ▲한계농지 태양광 공급인증 가치치 상향 조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산업단지 면적 규제 개선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이젠 '누워 떡먹기'도 끝인가?!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온열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2011년 지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 중소기업청 장관상 수상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면,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황철산소를 얹어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물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물을 만들었습니다.

▶우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우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